"세계 어디서든 바둑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2002년 3월 1일 개국 이후 바둑 인구 저변확대에 힘써 온 'K-바둑'이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케이블 바둑전문 채널인 '바둑TV'에 이어 후발주자로 출범한 'K-바둑'은 위성 바둑전문 채널로서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며 바둑 팬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해 10년차를 맞아 바둑 강좌 및 정보 프로그램을 대폭 증설한데 이어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에 있다. 이번 봄철 개편에서는 올해 첫선을 뵈는 내셔널리그를 집중 편성하고 바둑계의 뉴스와 이슈 등을 중점 보도해 바둑전문 채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14일, 합정동에 위치한 'K-바둑' 사옥에서 윤여창 사장을 만나 2012년 'K-바둑'의 비전을 들었다.

-개국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란 세월이 더디고 길게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장맛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숙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K-바둑'도 지난 10년이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앓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 사업은 시간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난해에 'Sky바둑TV'에서 'K-바둑'으로 채널명을 변경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출범 당시는 위성채널의 바둑전문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PTV(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스마트폰 TV, 케이블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독점 채널의 이미지에서 탈피한 거죠. 'K-바둑'의 K는 KOREA의 약자로 글로벌화에 대비한 채널명 변경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K-바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인지도 상승을 제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시청률은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도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초창기 때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맞춰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바둑TV'와 비교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기업, 대자본이 들어간 회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는 기대치를 충족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텐데요, 이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시청률 면에서 보면 이슈가 된 바둑이 최고죠. 가령 조훈현 국수와 서봉수 명인이 격돌한 바둑. 대국 후 전화가 빗발친 적이 있어요. 대체로 생방송의 시청률이 높은 편입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바둑, 세계를 삼키다」라는 해외다큐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 바둑 한류붐 조성에 미력한 힘이나마 기여도 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프로기전 이외에도 여성, 어린이, 아마바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K-바둑'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친시청자와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아마추어이고 기력을 늘리기 위한 바둑 팬들입니다. 내가 참가하는 대회의 소식을 전한다면 관심을 갖게 되겠죠. 프로와 아마대회, 어린이대회, 교육(강좌) 등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에 편성하는 이유입니다."

-두 개의 TV매체가 공존하기엔 바둑시장이 좁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골프와 낚시에도 두 개 이상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좁지 않다고 봐요. 요즘 「해품달(해를 품은 달)」이 인기잖아요. 해와 달이 공존하듯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상생에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내셔널리그 주관방송사 'K-바둑'

'한국바둑리그'에 이어 '내셔널리그'가 3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격 출범했다.

내셔널리그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전국 12개 시도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아마추어 바둑리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국에는 한국바둑리그라는 이름으로 프로리그만 존재했었다.

정규리그는 3월 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264국, 11라운드로 치러지며 8월 한달 동안 상위 4팀이 겨루는 포스트시즌이 열린다. 주관사는 'K-바둑'이며 정규리그 68편을 녹화중계하고 포스트시즌 대국은 생중계한다.

-프로리그에 이어 금년부터 아마추어 리그(내셔널리그)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내셔널리그 중계를 'K-바둑'이 독점했다죠.

"대바협(대한바둑협회)과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대바협에 일정 부분 콘텐츠 사용료를 제공하고 중계권을 따낸 것입니다. 녹화방송과 생방송으로 총 80경기를 중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내셔널리그 첫 방송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대국은 이미 마쳤습니다. 3월 15일 첫방송을 위해 지금 담당피디가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내셔널리그는 'K-바둑'을 통해 매주 목, 금요일 오후 7시와 8시에 1시간 분량으로 방송된다)."

-지방투어를 비롯해 포스트시즌 대국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첫선을 뵈는 리그로 관심이 큰 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바둑리그의 슬로건은 '이것이 승부다!' 인데요. 내셔널리그의 슬로건으로 준비한 것이 있나요?

"'새로운 리그, 새로운 승부' 입니다. 전국 투어 등 지역연고제의 장점을 잘 살려 보는 경기에서 참여하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내셔널리그를 만들겠습니다."

닥치고 무료다!

'닥치고 무료다'. 다소 무례하기 짝이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왠지 '무료' 라는 단어 때문인지 이내 감정이 누그러들고, 속물근성이 만연한 탓인지 한편으론 솔깃하다.

2011년 11월 'K-바둑' 이 자사가 송출하는 모든 편성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사용한 카피다. 판도라 에브리온TV에 'K-바둑 ' 채널을 오픈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K-바둑' 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향후 5년 정도면 방송과 통신은 경계가 무너질 거로 봅니다.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쌍방향 TV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픈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료다 보니 엡서비스를 통해 'K-바둑' 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뜨겁죠.

"스마트폰의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가입자 수 증가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공격적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닥치고 무료다' 라는 카피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데요.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혹 무료로 유인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유료로 전환하기 위한 상술은 아닌지요.

"무룝니다. 무료. 가입자들의 '볼 권리' 를 넓히려는 의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저도 모니터링을 텔레비전이 아닌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아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쇼. 워낙 상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좋은 뜻을 곡해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결례가 안 된다면 시청률 순위를 묻고 싶은데요. 현재 위성방송 채널 시청률 순위는?

"25~30위권. 상위 15% 이내입니다. 드라마(영화), 스포츠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죠."

윤여창 사장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7년이다. 투원포럼을 설립해 2001년 7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2002년 3월 'K-바둑' 의 전신인 'Sky바둑TV' 채널을 개국하면서 사명도 (주)투원미디어로 개칭했다.

투원미디어는 'K-바둑' 외에도 '엠플렉스', '미드나잇' 등 3개의 위성채널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정리하고 'K-바둑' 에 올인하고 있다.

-바둑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바둑 채널을 하시게 된 동기는?

"바둑도 하나의 장르라고 봤습니다. 바둑을 몰라도 방송을 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

데 1년 2년 바둑방송을 하다 보니 모니터링 때 어려움이 있더군요. 바둑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라든가, 바둑의 유불리를 미리 알면 좋을 때라든가 등등."

–반대로 바둑을 모르는 게 장점이 될 때도 있다면서요.

"물론 있죠. 프로그램을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둑방송이지만 너무 바둑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요소들을 가미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둑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죠."

바둑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가 바둑사업을 할 때는 백발백중 회사 오너가 '바둑광'이다. 그런데, 윤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바둑을 모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물었다.

–혹, 바둑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쿠! 이런 질문이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룰만 아는 정도입니다. 입문자 수준이죠. 입문자."

–어~ 큰일인데요. 'K–바둑' 사장님이 바둑 입문자라고 쓸거거든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둑을 배울 생각이 없으신지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면 문제라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바둑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을 통해 팬들과 강제로(?) 약속하셨으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하. 강제로 약속까지 하게 됐으니 큰일인데요. 취미생활로 바둑이 최고라고 하니 이참에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 중 으뜸은 콘텐츠다. 시청자들의, 다시 말해 바둑 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만이 바둑전문방송 채널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K–바둑'이 준비하고 있는 봄철 새로운 프로그램을 미리

들여다본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프로그램 비중을 보면 대국 해설이나 강좌에 지나치게 편중된 느낌을 받습니다. 바둑다큐나 토론, 뉴스 등 프로그램 다양화에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비의 부담 때문(다큐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비가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20~30배 더 들어간다고 한다. 반면에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인데, 금년부터 「명인명국」 등 강좌에 다큐를 가미한 프로그램을 선뵈고 있으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봄철에 대대적인 개편 프로그램을 내놓는데요. 'K–바둑'이 준비하고 있는 봄철 야심작을 미리 귀띔해 주신다면.

"내셔널리그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프로기전 못지않은 대규모 아마대회도 구상 중입니다."

지난해 글로벌화를 표방하며 'K–바둑'으로 채널명을 바꾼 윤여창 사장은 10년 후 'K–바둑'의 모습에 대해 "전세계 어디서든 바둑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중심에 'K–바둑'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둑방송에 올인한 그의 원대한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구기호 편집장〉